

「 **이홍재의 세상만사** 」



풀잎에 하얀 이슬이 맺혀 선선한 가을 기운이 느껴진다는 백로(白露)가 었그제. 이제 한가위 보름달이 세상을 환하게 비출 날도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추석은 벼농사를 많이 짓는 지역에서 가장 크게 쇠던 명절이다. 밭농사가 많은 이북 지역의 경우 보리가 수확되는 단오절이 추석보다 훨씬 큰 명절이었다고 한다.

“추석을 앞두고 벌초를 하지 않으면 제사 때 조상이 잡초를 머리에 쓰고 온다”는 옛말이 있다. 굳이 그런 말이 아니더라도 추석이 바로 코앞이니 벌초야 이미 다들 마쳤을 테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의문을 갖는 이는 아마 아무도 없을 것이다. 오곡백과가 풍성한 가을에 갖은 음식을 장만하니, 가난에 찌들었던 옛사람들로서는 늘 한가위만 같기를 바라고 또 바랐을 것 아니냐.

옛날 시골에서는 또 이런 말도 흔히 들을 수 있었다. “추석에 일을 하면 흙아비나 흙염짜가 된다.” 이는 고된 노동에서 해방되기를 기원하는 일

종의 경교성 구비전승(口碑傳承)으로 봐야 할 것 같다. ‘5월 농부 8월 신선’이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평소엔 허리가 휘도록 일을 해야 했지만, 추석을 맞아 쫓맛 같은 휴식과 풍성한 먹거리에 갖가지 놀이를 즐길 수 있었으니, ‘더도 말고 덜도 말고’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으리라.

여하튼 매년 한가위 명절이 다가오면 떠오르는 시 한 편이 있다. ‘추석 무렵’이라는 제목의 시다.

보름달과 여인의 영령이

“반짝반짝 하늘이 눈을 뜨기 시작하는 초저녁/ 나는 자식놈을 데리고 고향의 들길을 걷고 있었다 / 아빠 아빠 우리는 고추로 쉬하는데 여자들은/ 영령이로 하지?/ 이제 갓 네 살 먹은 아기가 하는 말을 어이없게 듣고 나서/ 나는 아릇한 예감이 들어 주위를 한번 스캔 훑어보았다/ 저만큼 고추밭에서 아낙 셋이 영령이를 까놓고 천연스럽게 뒤를 보고 있었다/ 무슨 생각이 들어서 그랬는지/ 산마루에 걸린 초승달이 입이 귀말까지 찌지도록 웃고 있었다”

이 시를 쓴 이는 뜻밖에도 해남 출신 시인 김남주(1946~1994)다. ‘전봉준의 혼(魂)을 달고 브레히트의 백(魄)을 달고자’ 했다는 시인은 감옥에 있을 때는 주로 저항시를 쓰고 밖으로 나왔을 때는 서정시를 많이 썼다고 한다. 이제 어느 평론가의 해설을 통해 이 시에 배어 있는 남도의 서정을 더욱 더 진하게 느껴 보자.

달님이시여, 저들의 눈을 뜨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이 시는 70~80년대에 대표적인 투사 시인으로 불리던 김남주 시의 본령이 사실은 살뜰한 서정과 애뜻한 생명 사랑의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 줍니다. 이 시에서 ‘자식놈’ ‘고추’ ‘아낙네’ ‘영령이’ ‘고추밭’ ‘초승달’의 하모니가 불러일으키는 대지적 상상력은 풍요로운 생산력과 관능적인 생명력을 물씬 느끼게 해 줍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세속적으로 아하지 않고 오히려 풋풋하게 느껴지는 게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추석 하면 생각나는 것이 또 하나 있으니 강강술래다. 해남·진도가 고향인 내 친구들은 아직도 또렷이 기억한다 했다. 달 밝은 밤이면 굵게 단장한 여인네들이 수십 명씩 모여 손에 손을 잡고 돌아가며 밤새 춤을 추던 그 환율한 모습.

한데 강강술래는 왜 대보름에만 추었을까? 달과 여성! 바로 여기에 비밀이 있다. 이들은 농경사회에서 풍요와 생산을 상징하는 존재였던 것이다. 달이 떠오르는 밤에 여성들이 달 모양의 원을 그리며 달을 노래하는 강강술래에는 자연과 인간이 고루 풍요롭게 공존하기를 바라는 소망이 깃들여 있다.

강강술래 하면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순신과 명량대첩을 먼저 떠올린다. 하지만 강강술래는 이순신 장군이 이를 이용했을 뿐 훨씬 이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놀이문화라는 것이 정설이다. 강강술래는 또 달빛 아래에서 밤새 노래하고 춤추는, 여인들만의 놀이인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

다. 과연 이 놀이엔 오로지 여인들만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일까?

몇몇 민속학자는 이와는 견해를 달리한다. “강강술래는 아주아주 옛날부터 남자들도 함께했으며 달 밝은 밤 ‘음심(陰心)이 동한’(?) 여성들이 짝을 고르기 위한 일종의 구애(求愛) 놀이였다. 강강술래에는 여러 놀이 형태가 복합되어 있는데, 그중에 ‘수건 놀기’ 같은 부속 놀이도 있다. 이를 통해 여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남자를 찢고 그 남자에게 수건을 전함으로써 놀이가 끝난 후 만나자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맘이 맞는 처녀 총각들은 구혼(求婚) 단계에 이르기기도 하고, 시집간 여자들은 추석날 친정에 와서 처녀 시절 사귀던 동네 총각이나 유부남 등과 통정하는 기회로 삼기도 했다.”

‘처녀들의 유흥’ 강강술래

학자들의 논문을 다소 거칠게 요약한 것이지만, 강강술래의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면 대체 그럴 만했다는 생각도 든다. “저 건너 큰 산 밑에 강강술래/ 동백 따는 저 큰아가 강강술래/ 안물 태도 좋다마는 강강술래/ 눈 주자니 너 모르고 강강술래/ 손 치자니 넘어 알고 강강술래/ 우리 둘이 일하다가 강강술래/ 해가 지면 어쩔거냐 강강술래”

예전엔 그렇게 남녀가 어우러져서 흥겹게 춤을 추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라 할 만큼 풍요로웠던 추석인데, 요즘은 왜 도무

지 흥이 나지 않는 것일까. 아무래도 빈부 격차가 커지고 사회가 양극화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명절이 되어도 달을 보며 ‘혼밥’과 ‘혼술’(혼자 먹는 밥과 술)로 마음을 달래야 하는 이들은 또 얼마나 많을 것인가. 젊은이들은 돈이 없어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하고 젊은이들은 효도·건강·용돈을 포기한다. 늙은이 젊은이 어차피 ‘3포 세대’이기는 마찬가지다.

이렇게 서민들의 삶은 신산(辛酸)하기만 한데, 저 아득히 높은 곳에서 호의호식하는 ‘1% 귀족’들은 온갖 잘못을 저지르고도 여전히 명명거리며 살고 있으니 별 하나에 나향옥, 별 하나에 우병우, 별 하나에 진경준·김형준... 밤하늘의 별만큼이나 많은 저 탐욕의 화신들은 일일이 이름을 헤아리조차 어렵구나. 여기에 ‘주옥같은 경제 칼럼으로 우리의 식견을 넓혀 주었던’ 송희영까지도 호명해야 하는 참담함이란! 이처럼 부끄러움을 잃어버린 족속들이 버젓이 활개를 치고 있으니 서민들로서는 즐거워야 할 추석이 오히려 쓸쓸할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닌가.

어찌 그리들 욕심이 많은 것일까. 올 추석에도 만약 동근 달이 뜬다면 개인적인 소원은 접어 두고 이렇게 빌고 싶다. “저들은 저들이 하는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권력과 명예와 부(富)를 모두 움켜쥐고 탐욕에 눈이 멀었습니다. 제발 두이레 강아지 눈만큼이라도 저들 마음의 눈을 뜨게 하소서.”(구상 시인의 ‘기도’ 일부 표절)

(주필)

‘고향서 1박2일’ 3752만명 대이동

추석 당일 791만명 ‘최다’

살아날 줄 모르는 불경기에도, 극심한 교통체증에도, 한가위를 맞아 고향으로 향하는 귀성객들의 발걸음은 예년보다 늘 어났다. 본격적인 귀성 행렬 시작 전이지만 광주·전남 주요도로와 버스터미널, 기차역, 공항 등으로 향하는 귀성객들의 행렬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추석 연휴(14~18일) 고향을 찾는 인원이 총 3752만명에 이

를 것”이라며 “특히 추석 당일인 15일 최대 791만명이 귀성길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12일 밝혔다.

‘3752만명의 대이동’은 지난해 추석(3724만명)에 비해 28만명(0.8%) 늘어난 것으로, 추석 연휴가 예년보다 길어 심적 여유를 갖게 되면서 귀성행렬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휴 기간 고속도로 교통량은 하루 평균 439만대로 예측됐다. 교통당국은 추석 전날인 14일 오전과 추석날인 15일 오후에

고속도로가 극심한 혼잡을 빚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연휴기간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 서울→광주 7시간, 서서울→목포 8시간50분, 서울→부산 7시간30분이 걸릴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부는 추석 연휴 기간 하루 평균 고속버스 1728회, 철도 58회, 항공기 20편, 여객선 210회를 돌려 대중교통 수송력을 보강하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고속도로 교통정보) 등으로 교통정보를 제공한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신안 압해도 年 30만명 유치

2천억 투입 복합리조트 착공

신안 압해도에도 연간 30만 관광객 유치가 가능한 대규모 복합리조트가 들어선다. 전남도와 신안군이 공동으로 투자협약을 체결한 다슬리조트는 12일 복룡리 일원에 복합리조트 조성 기공식을 가졌다.

다슬리조트는 2만여 평의 부지에 들어 서며, 총사업비는 2000억원이다. 1단계로 1200억원을 투자해 리조트 2개동(245실), 식당, 카페, 연회장, 해수찜, 워터파크와 각종 부대시설을 오는 2018년 5월까지 조성한다. 2단계로 800억원을 투자해 2020년 말까지 호텔 등을 완공할 계획이다.

다슬리조트가 준공되면 객실 기준 호남권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며, 350여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선건설(주)은 이 지사 취임 이후인 지난 2014년 12월 투자협약 체결 후 지난해 12월 지구단위계획 승인, 지난 6월 건축허가 등을 거쳐 1년 9개월만에 첫 삽을 떴다.

전남도는 지난 8월 동부권 여수 경도에 미래에셋의 1조 원대 복합리조트 투자 결정에 이어 서부권 신안 압해도에 2000억원대 다슬리조트가 착공됨에 따라 전남에 고급 리조트 ‘러시’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현석기자 chadol@

규명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김 전 장관의 구속 사건과 수사를 계기로 차라리 시장 자신을 포함해 시정 전반에 대한 불신도 함께 털어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윤 시장은 “앞으로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더욱 정직하고 투명하게 시정을 해나가겠다”며 “공직자도 이번 사태에 전혀 동요하지 말고 광주형 일자리 등 현안에 대해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권일기자 cki@

윤장현 시장 ‘인척비리’ 시민에 사과

윤장현 광주시장이 최근 김보 전 광주시 정책자문관의 구속과 관련해 대신인 사과 성명을 냈다.

윤 시장은 12일 “김보 전 정책자문관 구속 사건과 관련해 시청이 압수수색을 받는 등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저와 인척 관계인 김 전 자문

관을 철저히하게 관리하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윤 시장이 김 전 자문관이 구속된 지 이틀 만에 사과성명을 낸 것은 개인비리라고는 하지만 인척 관리를 못 해 발생한 것에 대한 심적 부담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윤 시장은 또 “사법 당국이 이번 사건에 관련한 모든 의혹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사람을 찾습니다

실종 당시 모습

- 162cm의 아원 체격, M자형 대머리, 목 뒤에 강낭콩 크기만한 혹이 있음
- 가슴, 배, 머리에 수술자국이 있음
- 실종 당시 삼정게이트볼 글자가 자수로 놓인 검은색 책, 뒷면은 흰색인 모자를 쓰고, 상의 모시 옷깃이 없는 반팔에 군색 망사 주머니가 있는 조끼, 하의 검은색 바지, 흰색 바닥에 검은색 나이키 운동화를 신음
- 3차례 암수술과 오랜 투병생활로 치매증상 있으며 체력저하로 보행이 불편하고 청력이 약함
- 심한 통증을 호소할 수 있음(평상시에 약을 못드시면 잠도 제대로 못주무셨음) 갑자기 통증이 있을시 감작갑작 놀라시기도 함

실종일시 : 2016년 8월 3일
실종장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지구 중흥아파트 정문 인근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아빠 좀 찾아주세요!!

최규복님 아들 최현성

010-5113-6582

완전 파격 상가 임대

나주혁신도시 호수공원인접 신축상가

-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과 부영아파트 인접
- 상업지역으로 시비권없음
- 6층건물중 3층 3칸 (약200평)
- 사무실, 식당, 노래방등 전업가능
- 월임대로 1년간 무료.

문의전화

010-3782-7360

20년 전 통 (주)호남경매

법원경매 이달의 추천 물건

- 동구 금남로 3층근린시설 우리는행빌딩 코너위치 대로변 건물 250평 토지 17평 ▶ **감정가 2억3천 최저가 1억7천만원**
- 북구 유동 주택20평 대지24평 상업지구 제개발지역 투자가치우수 ▶ **감정가 4천3백만원 최저가 4천3백만**
- 광산구 신창동 신축3층원룸건물108평 대지70평 방11개 수문초, 산장중근 위치 및 건물최상 ▶ **감정가4억7천 최저가3억7천**
- 서구 쌍촌동 2종일반주거지역 도로접 대지499평 투자적합 토지 222평 준주거지역 ▶ **감정가 11억9천 최저가 8억3천**

상가.토지.병원.사옥.창고부지 매매상당

- 남구 봉선동 모아아파트근 1층근린상가 건물85평 대지157평 투자최적 ▶ **감정가 6억5천만원 최저가 6억5천만원**
- 장성군 황룡면 2층주택 64평 대지 35평 주변환경 좋음 투자가치, 건물상태 좋음 ▶ **감정가 1억1천4백 최저가 8천만원**
- 동구 동명동 3층근린주택(상가+주택) 아시아문화전당부근 건물66평 토지47평 건물상태 좋음 ▶ **최저가 2억3천만원**
- 영암군 시종면 근린시설 3층건물306평 대지209평 주차장있음 면사무소근 근거리편리지역 ▶ **감정가 8억9천 최저가 3억2천만원**

★ **금매**

광산구 하남3지구 38차선 대로접 상업지역 대지132평 전면넓음 상권최상 프랜차이즈상당합원 ▶ **거래가18억(조정가)**

(주)호남경매 김용희 이사

010-7147-4989

수강생 모집

DIY 목조주택 혼자짓기

이동식 목조, 펜션, 농막

동영상 이론과 실습

광주대학교 호심관 ☎ 062-670-2167~8
9월 ~ 12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 9시

남부대학교 삼매관 ☎ 062-970-0082~3
9월 ~ 12월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 9시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 ☎ 061-270-1612, 3
9월 ~ 12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 9시

광주남부대학교/국립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

전담강사 상담 010-5766-5754